

# “모든 주민이 많은 혜택 누릴수 있는 구정 실현할 것”

## 반환점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

민생 회복·촉촉한 사회복지망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구 목표  
황룡강생태길·천원식당 성과

“민생 회복, 촉촉한 사회복지망,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을 통해 모든 주민이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2년간 지속가능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진 만큼 남은 2년은 “주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업무 변화와 혁신으로 광산구를 바꿔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2년동안 박 청장은 지역일지리를 지속 가

능한 일자리로 이끌기 위해 고심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모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다.

박 청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을 시행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처럼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혁신정책들도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123개 전체 위원회 실시간 공개, 동 미래 발전계획 수립 추진, 황룡강생태길30 조성 사업, 생활 쓰레기 매일 수거 정착, 불법 현수막 근절, 광산뮤직ON페스티벌 대성공, 천원한끼 식당 운영 등을 대표 성과로 뽑았다.

산적인 현안의 실마리를 찾고,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박 청장의 성과로 꼽힌다.

1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이 그것이다. 이 사업들은 광산구와 광주의 지도를 바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박 청장의 관심사항이었다.

또 광주시교육청의 광산구 이전 추진, 광산교육지원센터 설립, 가정 ‘광산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 현안, 숙원도 하나하나 풀리고 있다는 것이 박 청장의 설명이다.

박 청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

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변지역 도시환경 기초조사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 이전과 광주송정역세권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후반기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를 향한 구민 중심 사회적 대화 본격 추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박 청장은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민주주의”라며 “정치가 머문 민주주의를 경계로 확장해 주권자인 시민 뜻을 묻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해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달 2일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107명이 시민이 참여한 ‘지속가능 일자리 발굴단’과 지속가능 사회적 대화 추진단이 주축이 돼 앞으로 제조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마을일자리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일자리 혁신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

박 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특구가 주권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일자리·경제 개혁의 모험이 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자리, 주민 삶의 행복과 질을 높이는 일자리를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일자리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박청장의 계획이다.

“천원한끼” 식당 확대, ‘1313이웃살림’ 광산구 전 지역 확대로 사회복지망을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만들고,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를 세우기로 늘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은 100세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새로운 광산, 시민께 이로운 광산을 만드는 좋은 변화가 지난 2년 동안 뿌리내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광산구가 광주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점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 5개 지자체 모두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자체장 우수 공약·정책사례 공유  
일자리 개선·사회적불평등 완화 등

광주시 5개 자치구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7일 광주 5개 지자체에 따르면 동구는 ‘일자리 및 고용 환경 개선 완화’ 분야, 서구는 ‘사회적불평등 완화’ 분야, 남구는 ‘인구 구조변화 대응’ 분야, 북구는 ‘기후환경생태’ 분야, 광산구는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우수 공약·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해 개최된다.

대회에서는 ▲일자리 및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불평등 완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생태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동구는 이번 대회에서 구도심형 맞춤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지원’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근에 위치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창업지원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지역적 특색이 주목받고 또한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구는 이번 대회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에게 내일을 선물하다’는 주제로 가족돌봄청년 수당 지급 사례와 주민참여형 동행복지정책인 ‘오잇길 걷기대회’를 소개했다.

서구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 지원하는 체계와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남구는 올해 경진대회에서 선보인 ‘실버세대 삶의 쉼터’를 위한 맞춤형 4선 정책’을 선보여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얻었다.

남구는 건강 놀이터 조성 차원에서 지난 2022년

18홀로 문을 연 송촌 파크골프장을 올해 36홀로 확대·개장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를 끈질기게 설득하며 어르신 집단민원까지 해소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자평했다.

북구는 이번 경진대회에 ‘사람과 자연을 잇는 녹색 안전 도시’ 사례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북구지역 환경과 생태자원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생태 보존 및 자연 재난 예방 전략을 효율적으로 마련한 점과 ‘그린 마을만들기’, ‘에너지 전환 마을 거점센터 조성’ 등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해 기후 변화 심각성에 대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광산구는 주민 스스로 위기 이웃을 돌보며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는 ‘1313 이웃살림’ 사업으로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1313’은 이웃지기 1명이 위기가구 3세대를 살피고, 위기가구 1세대에 이웃단짝 3명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민·관·산·학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북구,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8500만원 확보

광주시 북구가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5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서 1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8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유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매년 상·하반기 걸쳐 실시해온 평가다.

올해는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24년도 상반기 재정 집행실적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1분기 평가에 신선했다. 상반기(1·2분기) 평가와 함께 총 2차례

진행됐다. 북구의 올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1323억 원으로 북구는 목표액 대비 125.62%에 해당되는 1662억 원을 지출했다. 이 중 1252억 원을 1분기에 집행해 신설된 1분기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실적 부문은 목표액 474억 원 대비 100억 원을 초과 집행해 재정 집행을 121%를 달성했다. 북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은 것이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민인 북구청장은 “지방재정 집행평가 12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구 1700여 공직자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

## 남구, 효천역 출발 ‘통일효도 열차’ 탑승객 모집

광주시 남구는 하반기 효천역에서 출발하는 통일효도 열차 탑승객 모집에 나선다.

7일 남구에 따르면 하반기 통일효도 열차가 오는 9월 24일(탑승객 150명)과 10월 24일(60명) 각각 효천역에서 출발한다. 참가 비용은 8만원이다.

9월에 출발하는 통일효도 열차의 목적지는 강원

도 철원 비무장지대로 효천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동두천역에서 내린 뒤 버스 편으로 분단의 상흔이 오롯이 남아 있는 철원 일대를 둘러보는 코스이다.

10월에 떠나는 열차는 대한민국 최북단 역으로, 북녘땅 개성을 관람할 수 있는 경기도 파주 일원 비무장지대를 찾는다.

두 열차 탑승객 모집은 현장 모집과 온라인 2가지 방식으로 한번에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남구 주민들로 2인 1조로 접수해야한다. 현장 모집(각 100명, 40명)은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각 50명, 20명)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탑승자 선정은 오는 16일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문의 남구청 총무과.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추억의 충장축제 ‘개미 장터’ 판매자 모집 25일까지

광주시 동구는 제21회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10월 2일~6일)에 열릴 ‘충장 개미 장터’ 판매자를 모집한다. 충장 개미 장터는 축제기간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열리며 세대를 확장해 가며 추억의 소중함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장터는 어린이 판매자들이 직접 자신의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어린이 장터’와 추억의 물건 판매 및 골동품 자랑전 등 무대 이벤트가 열리는 ‘추억 경매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장터는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대상이며, 추억 경매장은 추억이 담긴 물건

을 판매하고 싶은 시민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총 20팀 내외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5일까지로 이메일(chungjang2024@gmail.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충장축제 및 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 우리 삶 속에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나누는 추억이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